

종교적 신념 이유로 입영 거부

여호와와의증인 신도 111명 무죄 확정

대법원 전합 판례 변경 후 첫 무죄확정 판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와의 증인 신도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

는 박모씨(24) 등 111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며

판례를 변경한 뒤 무죄를 확정 지은 첫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진정한 양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무죄가 확정된 여호와와의 증인 신도 박씨는 2016년 11월 현

역임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며 판례를 변경한 이후 선고된 2심은 대법원의 법리와 판단기준을 적용하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5·18 망언 지만원을 구속하라”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지만원씨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해가스폭발로 마지막 1명 사망...7명 모두 숨져

지난 설날 강원 동해시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홍모씨(66·여)가 숨졌다.

이에 따라 이번 폭발사고로 현장에 있던 자매, 부부, 친척 등 일가족 7명이 모두 사망했다.

13일 동해시에 따르면 홍씨는 전날 오후 12시25분쯤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을 거뒀다.

앞서 설날인 지난달 25일 오후 7시46분쯤 강원 동해시 한 펜션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해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당시 펜션에 있던 일가족 가운데 첫째(70)와 남편(76), 둘째(66)와 셋째(58), 넷째(55)와 남편(55) 등 6명은 사고 직후 숨지거나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이날 숨진 홍씨는 이들의 사촌이다

“5·18은 北 폭동” 망언 지만원 1심 징역2년...법정구속은 면해

벌금 100만원 선고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망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씨(79)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이고,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씨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올려 기소된 손모씨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씨는 2014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공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지씨는 광주항쟁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을 올리고 “항쟁 열 총을 든 5·18 광주 북한 특수군이였다”라는 글을 올려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사진 속 사람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닌 당시 광주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은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에게 6개월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김씨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아내 성폭행 건과 이번 재판을 함께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업무방해 등 혐의 자체에 대한 감형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함께 기소된 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씨와 ‘솔바르타’ 양모씨, ‘둘리’ 우모씨도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뉴스1

● 단신 ●

학예회 준비 활동연습 유치원생 때린 여교사

광주 북부경찰서는 유치원 원생들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유치원 교사 A씨(26·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10일간 원생 4명의 머리를 밀치거나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는 등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치원 학예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활동 연습에 집중하지 않고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을 당한 한 아이로부터 이 사실을 들은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A씨는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진술하면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에 취해 전 직장 동료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전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52)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쯤 광주 북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풀건을 내리던 화물차 기사 B씨(56)에게 흉기를 휘둘러 북부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추적, 오전 8시쯤 전남 장성에서 붙잡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 B씨에게 앙심이 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저수지에 승용차 추락...70대 부부 숨져

13일 오전 9시38분쯤 충북 음성군 소이면의 한 저수지에 승용차가 빠져 70대 부부가 사망했다.

음성소방서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이 물속에 가라앉은 차량에서 A씨(77)를 10시13분에, B씨(78)를 10시17분에 차례로 구조했다. 하지만 모두 심정지 상태였다. 산발감시요원이 저수지에 차량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저수지 옆 비포장도로에서 운전 미숙 등으로 저수지로 떨어졌을 가능성을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 앞바다 바지선에서 40대 남성 갑판에 추락

12일 오후 8시 20분쯤 인천 송도 LNG 기지 북방 0.5해리 해상에서 372톤급 바지선의 구조물을 점검하던 B씨(48)가 2.5m아래 바지선 갑판 위로 추락했다. A씨는 허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해경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음주운전 유튜브 생방송 한 40대 남성 입건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며 유튜브 생방송을 한 A씨(47)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서 서구 신현동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튜브 방송을 보던 한 시민의 신고를 접수해 인천 서구의 한 식당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1%였다.

정화조 청소

깨끗한 물, 자연과 함께 하는 기업

노령미화사

금성미화사

061)393-3200

061)394-3200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환경법에 의해 청소해야 되며, 미 청소시엔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